스쿠버 인증과 동남아의 레저 잠수 현황 연구

✧ 강 신 영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개발공학부 교수

A study on the scuba certification and status of leisure diving in Southeast Asia countries.

✧ Sin-Young Kang

† Professor,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Korea

요 약 : 본 연구는 동남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저 스쿠버 잠수 인증 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잠수 현황 및 인증 현황을 비교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많이 활용하였고,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자료 보완을 위해 잠수 협회 관계자, 2007년 동남아 각국의 DIVE EXPO에 참가한 동남아 각국의 관광홍보 정부 관계자, 잠수 리조트 운영자 및 강사들과 폭 넓은 인터뷰를 하였다. 논문에는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쿠버 인증과 국제 표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조사 결과, 동남아 지역은 레저 스쿠버 잠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으로 관광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 레저 다이버 인증 숫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큰 시장으로 발전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쿠버 잠수 활동이 구미 지역에서 도입되었고 잠수 단체의 총 본부가 구미 지역에 있는 만큼 잠수 제도나 정책 문제에 있어서 조직 체계상 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현재 상태로는 개선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국제 표준 제도와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및 단체 결성에는 아직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이 곧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핵심용어 : 스쿠버 잠수, 레저 스포츠 잠수, 레크리에이션 잠수, 인증 제도, 스쿠버 잠수 협회, 동남아 지역

Abstract : This study is about the status and comparison of recreational scuba diving certification system in Southeast Asia countries. For the collection of the information, the contents of the numerous corresponding Internet sites were utilized, related documents were surveyed. And to supplement the information extensive interviews were held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ourism department of many countries as well as staffs of diving associations, resort operators and diving instructors during various 2007 Dive Expos held in Southeast countries. In this paper, the relation between scuba certification and international standards were introduc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ertification system.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scuba diving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ir country's tourism and the certification market of the Southeast Asia has grown to be greater than 30% of the world total market. However due to the facts that the scuba activity is originated from the western world and the controlling headquarters of the most certification agency are also located there, Southeast countries cannot take any leading roles in the scuba diving policies and systematic issues. Accordingly any modifications or improvements are expected to be very difficult. Also while Europeans and Americans have launched the programs and organizations for the quality assurance by coope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but no such activity has yet appeared on the surface in Southeast Asia.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the necessity will become bigger in near future.

Key words : Scuba diving, Recreational diving, Leisure sport diving, Certification, Scuba diving association, Southeast Asia

1. 서 론

1.1 스쿠버 소개

잠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분할 때 지식 잠수, 환경압 방식, 대기압 방식으로 나눈다. 또한 활동 특성에 따라 산업 잠수, 군사 잠수, 과학 잠수, 레저 잠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강, 2004). 스쿠버(SCUBA)란 Self 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의 약어이다. 스쿠버 방식은 다시 개방 회로(open circuit), 반폐쇄 회로(semi-closed circuit), 폐쇄 회

로(closed circuit)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레저 다이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기통과 호흡기는 개방 회로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인증의 범위는 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개방 회로식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는 잠수 활동으로 제한하였다.

1.2 연구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레저 잠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라고 보고 있다. 당시 YMCA를 비롯하여 NAUI, PADI 등 국

† 교신저자 : 강신영(종신회원), sykang@hhu.ac.kr 051)410-4323

제적인 교육기관들이 조직되었고, 국내에는 1970년대에 이들 조직이 소개되어 강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 레저 잠수 동호인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레저 잠수 관련 업체는 700곳 이상, 잠수 교육을 위한 전용 풀장도 50여 곳이나 된다. 이렇게 잠수 활동은 이제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의 하나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였지만 조금만 부주의해도 사고로 연결되는 위험한 활동이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대개 그 지역 고유의 법규와 규제가 있어 다이버들은 이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잠수 전에 이를 확인하게 하고 또한 적절한 잠수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ard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C-card는 Certification card의 약어로 국내 잠수계에서는 인증증, 인정증, 또는 자격증이라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다(이하 인증증을 사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교육기관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시작된 조직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어떤 통계 조사가 실시된 것은 한 번도 없어 국내에서 인증증을 취득한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현재로는 알 도리가 없다. 더구나 외국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비용을 인증증 발급비나 강사 연회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 액수도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은 비교적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교육기관들이 중국내에서 교육을 하려면 국가 단체와 협정을 맺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CUA, 2006)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남아의 레저 스쿠버 활동 현황을 소개하여 국내 스쿠버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해보자는 것이 표면적인 목적이지만, 스쿠버 인증 제도의 본질, 그리고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의의를 정립하여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동남아 국가들은 해양 환경이 좋고 우리나라보다 잠수가 먼저 도입되어 잠수 활동과 관련된 해양 리조트가 많이 발달해 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문헌자료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활약 중인 잠수 강사들, 그리고 각국의 관광부서 관계자와 협회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현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참고로 잠수 산업이 발달한 몇몇 동남아 국가의 리조트 현황과 다이버 수, 그리고 발급되고 있는 인증증의 숫자를 추측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자료를 소개하였다. 최근 필리핀을 비롯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에까지 한국인의 잠수 여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현지인 리조트의 수도 상당히 많아졌다(해저여행, 2001). 우리의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스쿠버 잠수를 비롯한 해양 레저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잠수 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향후 연구가 필요한 후속 과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물은 국내 잠수 동호인뿐만 아니라 잠수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스쿠버 다이버 인증 제도

2.1 잠수 인증의 의의

스쿠버 잠수 인증증의 발급은 스쿠버 잠수 교육단체에서 하는데 각각의 단체들 나름대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 기준을 보통 표준규정(standards 또는 manual)이라고도 한다. 이 표준규정에는 최소한의 교육시간, 이론, 수영장 및 해양 실습의 내용과 횟수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표준규정들은 초급, 중급, 상급, 특수과정 등 각각의 교육과정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각 교육단체 고유의 원칙과 교육 철학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 그래서 해당 교육단체에 소속된 강사는 표준규정에 맞도록 훈련을 시키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거친 다음, 해당 교육단체에 문서로 발급 요청을 하면, 교육생에게 인증증이 발급된다.

초기에 발급한 인증증은 그저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증에 지나지 않았다. 즉 요즈음과 같이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일종의 명예를 위한 증표였다. 그러다 잠수 산업이 활성화되고 레저 다이버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증증은 잠수하는데 없으면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잠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명 외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선 인증증은 다이버의 안전과 관련되어 잠수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가령 어떤 다이버가 특정 수준의 인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다이버는 그 수준의 난이도나 위험 정도를 넘지 않는 장소에서 잠수를 해야 한다. 이는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수 현장에서 인증 등급을 확인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또 인증증은 각 단체의 규모와 잠수 산업의 국가별 규모에까지 언급될 정도로 하나의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잠수 단체들 중 규모가 가장 큰 PADI의 경우 2000년 전세계에 걸쳐 864,052개의 인증증을 발급하였고 1967년 이후 총 10,151,841개를 발급했다는 통계 자료를 그들의 홈페이지에 제시한 바 있다(PADI, 2006). 최근 관광 산업이 국가 기간 산업인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이제 스쿠버 다이버 인증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ADEX, 2007).

그리고 인증증 발급은 잠수업자의 측면에서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태국의 피피 섬에는 약 10개 정도의 다이브숍이 영업 중인데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각숍의 연간 인증증 발급 숫자가 약 3,000장 정도라는데, 이는 국제적인 중견 단체의 우리나라 전체 강사들이 발급하는 숫자와 거의 비슷한 통계라고 한다. 세계적인 규모의 많은 잠수 단체들과 소속 강사들이 최고의 교육과 운영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지만 홍보의 목적 중에는 결국 인증증 발급을 통한 소득 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이버의 입장에서 보면 인증증은 여러 가지 증

명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앞에서 언급한 안전 차원에서 특정 잠수 장소에서 잠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 외에도, 잠수 기술 연습을 위해 잠수 전용 수영장에 입장할 때도 필요하며, 실린더를 충전하거나 대여할 때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상급 과정의 교육에 등록하기 위한 구비 조건으로 하위 등급의 인증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인증증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잠수업계에서는 이미 검증이 완료되고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 다만 1990년대에 들어 잠수업계의 호황과 함께 신뢰성과 투명도가 떨어지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서, 교육단체들도 이제 일류와 이류, 그리고 정크 브랜드로 부를 정도로 단체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김, 1998a; 김, 1998b)

2.2 스쿠버 인증과 국제 표준

ISO는 국제표준화기구로 국제표준안을 제정하고 있다. ISO에서는 품질 관리를 위한 국제 규격으로 ISO 9000 패밀리 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유럽 표준은 유럽의 통합에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단일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표준이다. 각국의 표준 제정 작업을 협의 조정하고 유럽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유럽 표준위원회(CEN)가 있다. 여기서 제정하여 공표하는 유럽 표준을 EN이라고 하는데, CEN이 발표하지 않고 각국의 표준 기관(영국의 경우 BS)으로 하여금 자국 내의 세부 시행 절차와 함께 발표하고 출판하도록 하고 있다. 레저 잠수와 관련한 표준안이 영국 표준인 BS와 BS EN 그리고 ISO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참고로 레저 다이빙 서비스 부문의 ISO와 EN 규격은 일부 단어와 몇 군데 구체적인 내용 명시 차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골격은 거의 동일하다(레저 스쿠버 다이빙의 훈련을 위한 안전 관련 최소 조건들을 명시한 ISO 24801은 EN 14153과, 스쿠버 강사를 위한 ISO 24802는 EN 14413과, 그리고 잠수업자들을 위한 ISO 24803은 EN 14467과 대비된다).

2007년 6월 EUF는 IAHD와 NAUI Europe, 그리고 Russia의 NDL이 EUF 인증 및 ISO 인증을 취득하였다고 그들 웹사이트(<http://euf.vdst.de>)에 발표를 했다. EUF라는 기관은 레저 잠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규와 안전 등 레저 잠수 전반적인 부문에 대한 자문 기관으로 1989년 설립되었다. 2007년 현재 17개 잠수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이 기관에서는 회원 단체들이 EN 규정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증을 발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EUF Certification Body, 2007).

한편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는 미국에서의 임의 표준 활동을 관리 조정하고, 표준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미국 국가표준으로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ANSI는 직접 표준을 개발하지는 않으나, 각 기구

들의 표준과정을 관리하여 여러 기구들이 작성, 처리, 승인 및 배포하고자 하는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승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제표준기구인 ISO/IEC에 공식적인 미국 대표로 활동한다. ANSI 설립이나 ANSI의 권한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미국은 민간표준에 대한 폭 넓은 신뢰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ANSI, 2007). 스쿠버 잠수와 관련하여서는 “스쿠버 잠수 교육 표준과 안전에 관한 ANSI Z-375 위원회(ANSI Z-375 Committee on Scuba Diving Instructional Standards and Safety)”라는 그룹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ANSI의 잠수 부문 프로세스를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사무국(Secretariat)”이라고 부르는 조직이다. 현재의 사무국은 RSTC(Recreation Scuba Training Council)이며 RSTC는 미국의 모든 잠수 교육기관이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육기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협의기구이다. 1999년 RSTC는 WRSTC로 개명하고 스쿠버 교육과정의 최소 훈련기준을 위한 국제적인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을 모으고 있다. 현재 WRSTC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 4곳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각 지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WRSTC, 2007).

3. 동남아 국가들의 잠수 현황 및 인증 현황

3.1 동남아 각국의 잠수 현황

동남아시아는 주로 열대성 기후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있고, 산호초들이 넓은 지역의 해안선과 섬들에 분포되어 있어 다양하고 특이한 해양 생물들이 많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잠수 환경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잠수 활동이 제한되어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보존된 미개척지가 아직 많이 있다. 이 지역은 홍보물이나 안내 책자에 연중 잠수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대부분 몬순의 영향으로 해상 상태와 가시도가 좋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시기적으로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1) 태국

태국은 아시아에서 관광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연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약 5백만 명에 이른다. 해안선의 길이가 2,000 km 이상이며, 서쪽으로 155개의 섬이 있는 Andaman Sea와 동쪽으로 112개의 섬이 있는 Gulf of Thailand를 끼고 있어, 동서 양쪽에 서로 다르지만 특색있는 수중 경관을 가지고 있다. 잠수 활동은 1월에서 5월 사이가 최적기이다(Lees, 2006). 태국 관광청의 자료(ADEX, 2007)에 의하면 방문 관광객 중 다이버의 수는 약 55만 명이고, 전 세계에서 발급되는 다이버 인증증의 30%가 태국에서 발급된다고 한다. 또한 국내 다이버의 수는 약 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TUIC(Thai Underwater Instructor Club) 관계자에 의하면 다이브숍 및 리조트 수는 약 300개로 추산되고 있다.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파단을 비롯하여 티오만 섬, 레당 섬 등 수중 경관이 훌륭한 잠수 명소들이 많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들 명소를 해양 공원으로 지정하여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고, 교통과 숙박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몬순의 영향으로 서부 지역은 11월에서 3월, 동부 지역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잠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MSDA (Malayan Sport Diving Association) 관계자에 의하면 전국의 다이브숍과 리조트 수는 160에서 180개 사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 관광청의 공식 간행물인 Virtual Malaysia의 Scuba Diving 특별호(2007)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잠수 산업 규모는 2006년 7억 링깃(약 2조원) 규모이며, 다이버의 수는 약 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리고 2006년 시작된 MIDE(Malaysia International Dive Expo)에 정부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년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업체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로 섬이 18,000개 이상이며 해안선의 길이도 80,000 km 이상이다. 전 세계 산호초의 10에서 15% 정도가 여기에 있고 연중 잠수 활동이 가능하며, 가장 훌륭한 잠수 장소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미개척지가 많아 자연 그대로의 수중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스쿠버 장비가 소개되고 잠수 산업이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채 20년도 되지 않는다(Muller, 1996).

인도네시아는 잠수 측면으로 볼 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개척지라고 할 수 있다. 리조트 시설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다이버들이 보트를 이용한 리브-어보드 잠수를 선호하고 있다. 2007년 처음으로 잠수 Expo가 개최되었다. 협회로 ISDA(Indonesia Sport Diving Association)가 결성되어 있고 PADI, NAUI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주변 국가들에 비해 아직은 그 수가 많지 않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반도의 맨 아래에 위치하여 반도에 연결된 작은 섬이다. 해양 국가이면서, 태국과 번갈아가며 ADEX(Asian Dive Expo)를 개최할 정도로 레저 잠수 산업도 일찍부터 발달되어 있으며, 국가적인 정책 배려와 지리적 편의성으로 인해 다국적 장비 제조사들의 아시아 지점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다이버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주로 태국,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지로 잠수 여행을 많이 떠난다. 이 국가의 특이 사항은 잠수기술 인증과 수준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의 산업인력공단과 유사한 정부 산하 조직에서 NSRC (National Skill Recognition System)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수준에 따라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SUF(Singapore Underwater Federation)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5) 필리핀

필리핀은 약 7,100개의 섬나라로 해안선의 길이가 18,000 km 정도이다. 어느 잠수 지역을 가도 다양한 해양 생물과 훌륭한 잠수 경관을 볼 수 있다(Deichmann and Taus, 2000). 필리핀의 잠수 산업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ADEX에 참가한 필리핀 관광청 관계자에 의하면 다이브숍 및 리조트 수는 약 400개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아닐라오와 민도르, 그리고 세부 지역에 한인 리조트들이 많이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이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국가이다. 11월에서 6월이 건기로 이때가 잠수 환경이 좋은 시기이다.

(6) 중국

중국은 1995년 <全民健身計劃綱要>에 의해 여가 활동을 위한 중국잠수운동협회(CUA)가 설립된 이래 중국 전역에 걸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설립 당시 8개에 불과하던 클럽이 2006년에는 103개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2005년 한 해 동안 약 12,000장의 인증증을 발급하였다. CUA(Chinese Underwater Association)는 CMAS 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CUA의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CUA에 등록된 단체 만이 중국 대륙에서 잠수 활동을 보급할 수 있으며, 또한 소속 강사도 개인별로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강습회는 반드시 협회의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인증증도 CUA와 계약 협의된 단체와만 교체인증을 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외국 단체는 PADI, NAUI, ADS, BSAC, SSI이고 등록된 강사 수는 약 300명이다(CUA, 2006). 중국은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 여러 인증 단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2005년 상해에서 CDEX(China Dive Expo)를 처음 개최한 이래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협회는 청화대학을 비롯하여 담강해양대학, 북경대흥제1 직업중학 등과의 교류를 통해 잠수 스포츠를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보험제도 도입과 훈련현황 감독 및 협회기준 시행 점검제도 운영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7) 기타

최근 들어 문호가 개방되면서 태국의 인근 국가인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해안선을 따라 레저 잠수 산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물가가 싸고 아직 자연 그대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관광 산업과 연계되어 레저 잠수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다.

3.2 동남아의 잠수 단체 및 협회

동남아 국가에 처음 잠수 단체가 결성된 것은 1959년으로,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은 영향에 의해 말레이시아에 BSAC의 해외 지부인 MSAC가 1959년에 일찌감치 설립되었다. 이후 주로 유럽과 미국의 주요 인증 단체들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

르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잠수 협회 또는 단체들의 성격은 공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구미 지역에 본부를 둔 잠수 인증 단체들의 국가 단위의 하부 조직으로서 결성된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별 또는 단체별로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 조직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며, 세 번째는 각 국가에서 활동 중인 각종 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일종의 범 국가적인 조직이다. 첫 번째 형태의 단체들 중 아시아에서 활동이 활발한 단체는 PADI, NAUI, BSAC, SSI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CMAS 연맹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세 번째 형태는 태국의 TUIC나 말레이시아의 MSDA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인증증 발급보다는 여러 단체들 간의 조정 업무와 공통적인 활동 및 이익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 정부 활동에서의 창구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3.3 인증 현황

동남아 국가들의 인증 단체 및 협회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동남아 국가들에서 구미 국가들의 영향 하에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소위 메이저라고 부르는 대형 국제 인증 단체들은 아시아 권역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다. 인증증 발급도 각국의 강사들이 직접 아시아 본부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 국가별 지역에서 발급 권한을 이양시킨 단체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PADI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며, 그 뒤를 이어 BSAC, CMAS, NAUI, SSI 등의 단체들이 지역별로 다르게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дай버의 인증 자료는 어느 단체라도 정확한 숫자 제시를 꺼려한다. 2002년 DEMA에서 4개 단체들이 자료를 공유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다른 단체들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있으며, 약속한 단체들도 각자의 자료 취합 방식에 의문을 갖고 있는 형편이다(Division,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PADI는 인증증 발급 통계와 함께 주요 지부별 자료(Fig. 1)와 미국 내의 다른 잠수 단체들과의 시장 점유율도 제시하였다(PADI, 2006). 그러나 다른 대형 규모의 단체인 NAUI는 PADI 자료와 다르게 자신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3 이상이며, 점점 커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시장 점유율은 이 보다 더 크다고 한다(NAUI, 2005). 또한 PADI의 발표 자료에 대해 의문시하며 인증 숫자에 대해 거론하면서 조목조목 반박 자료를 제시한 잡지 기사도 나오고 했다(Davison, 2007). 이들 자료에 대한 정확성은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동남아 국가들 관광 담당부서의 홍보물과 현지 다이브숍 운영자 및 협회 관계자들의 진술을 참고할 때 동남아시아의 인증 현황은 그 규모가 전 세계 규모의 30%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Fig. 1 Worldwide PADI Certification(PADI, 2006).

4. 결 론

동남아시아의 잠수 시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현지인보다는 외국 방문객들의 선호도에 따라 발달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각국의 DIVE EXPO에서 보듯이 자국민들의 활동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근래에 와서는 국가마다 관광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비롯한 태국의 주변국, 그리고 중국도 이에 가세하여 레저 잠수 산업 발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레저 잠수 산업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각국의 DIVE EXPO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관광 담당 부서에서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인증 현황 자료에 의하면 동남아시아의 인증 규모는 전 세계 규모의 30%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쿠버 잠수 활동에 대한 생리학적인 연구나 제도와 정책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인증 단체의 현황에서 보듯이 모든 이권과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구미 지역의 국가들이 거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 제도의 구조상 이에 대한 개선책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스쿠버 인증 제도를 국제 표준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 아시아에서는 이러한 국제 인증에 대한 관심도가 크지 않지만 과거와는 달리 스쿠버 잠수가 점점 대중화될수록 교육 품질 인증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크게 될 것이다. 또한 구미의 국가들과 같이 표준과 품질 인증이 보험제도와 연계가 될 때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될 것이다.

본 연구의 후속 과제로 몇 가지 주제를 여기에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내 다이버 인증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그 동안 구미 국가들의 주도하에 인증 제도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모든 동남아 국가에 정착이 되었지만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고 조정을 하면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동남아 잠수 시장에 대한 비교 분석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현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으나 장비 판매 현황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분석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및 잠수업계도 동남아 시장 분석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국내 잠수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연구이다. 수중 환경이 월등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보다 태국의 잠수 산업이 더 활발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잠수 산업 외의 다른 관광 및 오락 산업과의 연계를 비롯한 다른 요인들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잠수 관광 산업의 여러 요인들과 국내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잠수 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 국내 дай버뿐만 아니라 외국 дай버들도 선호할 수 있는 잠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후 기

본 논문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외과건교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참 고 문 헌

- [1] 강신영(2004), “잠수일반”, 한국산업인력공단.
- [2] 김풍등(1998a), “다이빙 교육단체의 질 염려할 때가 왔다”, Scuba Diver, 1998년 9/10월호, pp. 124-125.
- [3] 김풍등(1998b), “다이빙 교육단체의 등급과 그들의 문제점”, Scuba Diver, 1998년 11/12월호, pp. 180-182.

- [4] 해저여행(2001), “필리핀 한인 다이빙 리조트 정리”, 해저여행, 2001년 11/1월호, pp. 102-106.
- [5] ADEX(2007), “<http://www.asiandiveexpo.org/>”
- [6] ANSI(2007), “<http://www.ansi.org/>”
- [7] CUA(2006), “2006年中國潛水運動協會工作報告”, 중국잠수협회 제12회 대표회의, 해남도.
- [8] Davison, B.(2007), “How Many Divers Are There?”, Undercurrent, Vol. 22, No. 5, May 2007.
- [9] Deep Indonesia(2007), “<http://www.deepindonesia.com/>”
- [10] Deichmann, G. and Taus G.(2000), “Dive Sites of the Philippines”, Dream Time.
- [11] EUF Certification Body(2007), “<http://www.euf-certification.org/>”
- [12] Lees, P.(2007), “Dive Thailand”, Sun Offa Beach Co., Ltd.
- [13] Muller, K.(1996), “Diving Indonesia”, Periplus Editions Ltd.
- [14] NAUI(2005), “<http://www.naui.org/>”.
- [15] PADI(2006), “<http://www.padi.com/>”
- [16] Piprell, C.(2004), “Diving in Thailand”, 3rd ed., Marshall cavendish edition, p215.
- [17] WRSTC(2007), “<http://www.wrstc.com/>”

원고접수일 : 2007년 12월 24일

원고채택일 : 2008년 2월 25일